

2018.11.6.~11.11.

4박6일

2018년

장성군의회 국외의정연수 계획(안)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장 성 군 의 회

2018년 장성군의회 국외 의정연수 계획(안)

《 연 수 목 적 》

- 국외연수를 통해 다른 나라의 도시환경, 문화관광 자원 등에 대하여 비교견학 함으로써 우리군 발전을 도모하고,
- 비교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우수사례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연구 및 개발하고자 함.

1. 연수개요

- 연수기간 : 2018. 11. 6.(화) ~ 11. 11.(일) / 4박 6일
- 연수국가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 연수분야 : 도시계획, 도시정원, 문화시설 등 선진지 비교체험
- 연수인원 : 12명(의원 8, 공무원 4)
- 연수경비 : 금28,200천원(의원 18,800, 공무원 9,400)

(단위 : 천원)

구 분	연수인원	연수경비		
		계	예산액	자 담
계	12명	28,200	28,200	
의 원	8	18,800	18,800	
공무원	4	9,400	9,400	

○ 예산과목

가) 의 원

정책)지방의회 운영지원 단위)의회 의정활동 지원 세부)의정활동비
편성목)의회비 통계목)의원국외여비(205-04)

나) 공무원

정책)지방의회 운영지원 단위)의회(의사)운영 지원 세부)의회공무원 역량강화
편성목)여비 통계목)국제화여비(202-04)

○ 연수주관/주최 : 장성군의회 / (주)허브여행사

2.

방문국가 현황

싱가포르



정식국명은 싱가포르 공화국(Republic of Singapore)이며 1819년 영국이 무역 거점으로 개발한 도시였다. 1963년 현재의 말레이시아에 포함되었다가 1965년 말라야 연방에서 탈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가지는 섬의 남부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19세기 초 건설 당시 유럽인·인도인·말레이인 등 종족별 주거지로 나뉘어 그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다. 해상 동서교통의 중요 지점에 자리잡고 있어 자유 무역항으로 번창하였다.

싱가포르는 영국식 의회 정부의 공화국으로 대통령 직선제하의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의회는 단원제이다. 행정부의 수반은 총리이고 대통령이 다수당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서 임명한다.

■ 일반현황

- 위 치 :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섬
- 면 적 : 697km²(세계 192위)
- 수 도 : 싱가포르(Singapore)

- 종족구성 : 중국인(76.8%), 말레이인(13.9%), 인도인(7.9%), 기타(1.4%)
- 공 용 어 : 중국어, 영어, 말레이어, 타밀어
- 종 교 : 불교(42.5%), 이슬람교(14.9%), 도교(8.5%), 힌두교(4%)
가톨릭교(4.8%), 기타 기독교 (9.8%), 기타(0.7%), 무교(14.8%)
- 정 체 : 공화제, 의원내각제, 단원제
- 통 화 : 싱가포르 달러 (S\$)
- G D P : 3,496억\$ 세계37위 (GDP:국내총생산) *한국 : 세계12위
- 인 구 : 579만명 (2018년) *한국 : 5,163만명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남단과 보르네오섬 일부에 걸쳐 있는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1786년부터 영국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 1957년 싱가포르를 제외한 말레이반도 11개 주가 통합하여 말라야 연방으로 독립하였고, 1963년 싱가포르·사바·사라와크를 합쳐 말레이시아가 되었다가 2년 후 싱가포르가 탈퇴·독립하여 현재에 이른다.

행정구역은 13개 주와 1개 연방 준주, 3개 시(쿠알라룸푸르, 라부안, 푸트라자야)로 이루어져 있다.

■ 일반현황

- 위 치 :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 면 적 : 329,847km²(세계 67위)
- 수 도 :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 종족구성 : 말레이인(50.4%), 중국인(23.7%), 원주민(11%), 인도인(7.1%), 기타(7.8%)
- 공 용 어 : 말레이시아어
- 종 교 : 이슬람교(60.4%), 불교(19.2%), 기독교(9.1), 힌두교(6.3%)
- 정 체 : 입헌군주제
- 통 화 : 링깃(Ringgit, RM)
- G D P : 3,649억\$ 세계36위 (GDP : 국내총생산)
- 인 구 : 3,200만명

3. 주요 방문지

○ 센트럴마켓 재래시장(말레이시아)



차이나타운 북쪽에 위치하며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장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1888년 식민지 통치를 하던 영국인들이 처음 지었으며 당시에는 시민들과 주석 광산의 광부들이 이용하던 재래시장

이었다. 이후 계속 확장되어 1933년에는 도매시장으로 현재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1985년 활기 있고 색채가 화려한 새로운 모습으로 재 보수하였으며 1986년에는 파사르 부다야 라는 공식 명칭을 얻게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쇼핑센터 안에는 말레이시아 각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 악세서리, 민속 공예품, 민속 의상 등을 비롯해 다양한 기념품이 진열되어 있다.

○ 페트로나스 트윈스 건축물(말레이시아)



1992년 공사를 시작해 1999년 8월 개관하였고 88층의 쌍둥이 빌딩이다. 말레이시아가 2020년에 선진국에 합류한다는 비전2020 계획을 상징하는 건물이다.

연면적 6만 5728평에 지하 6층, 지상 88층, 전체높이 452m로 소유주는 말레이시아의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나스와 쿠알라룸푸르 시티센터(KLCC)로, 타워 이름 역시 이 석유회사 이름에서 딴 것이다.

지상 175m 높이의 41층과 42층에 걸쳐 두 빌딩 사이를 스카이 브리지로 연결해 양쪽 건물의 흔들림이 없도록 하였다. 또 88층부터 4개 층이 하나의 층을 이루는 중층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4개 층까지 합하면 92층이 된다. 외형은 언뜻 보면 금속으로 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콘크리트 건물로, 외벽만을 스테인리스강과 유리로 장식했을 뿐이다. 지상부터 6층까지는 쿠알라룸푸르 최대의 상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 한쪽에 페트로나스 본사가 있다.

한국의 삼성건설(주)과 극동건설(주) 컨소시엄이 한쪽 타워를 시공하

였고, 다른 한쪽은 일본 회사가 시공하였다. 한국 컨소시엄은 일본에 비해 35일 늦게 착공하였지만 최종 완공은 6일을 앞섰다.

○ 푸트라자야 신행정도시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는 계획도시로 연방정부의 행정수도로 기능하는데, 말레이시아 초대 총리를 지냈던 툰쿠 압둘 라만 푸트라라는 이름에서 도시명이 유래되었다.

2002년에 쿠알라룸푸르와 연결되는 초고속열차가 개통되었고, 푸트라자야 시내에는 모노레일이 운행된다. 관광 명소로는 말레이시아 총리부 청사인 페르다나푸트라, 시 제1의 이슬람사원인 푸트라 모스크, 푸트라자야 독립광장, 연방 사법부 청사, 푸트라자야 호수 등 많은 곳이 있다. 또한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많은 교량도 눈길을 끈다.

○ 센토사 섬 역사문화관광 시설 (싱가포르)



싱가포르 본섬에서 남쪽으로 약 800m 떨어져 있으며, 크기는 동서길이 4km, 남북길이 1.6km이다. 지명은 말레이어(語)로 '평화와 고요함'을 뜻한다. 1970년대까지 영국의 군사기지였다가 이후 싱가포르 정부의 지원으로 관광단지가 조성되었다. 해양수족관인 언더워터월드와 음악분수 등이 있다.

아시안빌리지에서는 각 민족별 예술품과 전통음식 등이 전시되고 있으며, 희귀석박물관·싱가포르역사박물관·해양박물관 등 3개 박물관이 있다. 남쪽 해안에는 실로소·센트럴·탄중 해변 등의 휴양시설이 있고, 각종 해양 스포츠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12일 센토사섬에 위치한 카펠라 호텔에서 가진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 싱가포르 시티 갤러리 도시계획시설(싱가포르)



싱가포르 시티 갤러리(Singapore City Gallery)는 중앙 정부의 엄격한 통제에 의해 개발된 도시 국가 싱가포르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곳이다. 싱가포르는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통해 단순한 물류 허브에서 쇼핑, 관광, 금융이 복합적으로 조화된 세계의 중심지로 변화하였다. 갤러리는 총 10개의 테마로 구분되어 있는데,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도시계획을 시청각 자료, 모형, 지도, 그림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우리나라 서울에서 끝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 현상과 비교해보며 둘러보면, 치밀한 싱가포르 도시 개발의 진면목에 대해 감탄하게 된다.

○ 마리나베이 샌즈 (싱가포르)

전망 좋은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 명품 브랜드가 입점한 쇼핑몰이 즐비한 마리나베이는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관광지다. 싱가포르의 남쪽 끝, 넓은 바다와 높은 빌딩들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마리나베이의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싱가포르의 핵심 볼거리를 볼 수 있다. 플러

턴 호텔 앞은 싱가포르의 상징인 '머라이언 상'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바다 건너편에는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이 웅장하게 서 있다.



○ 마리나 버라지 상수도시설(싱가포르)

마리나 버라지는 물의 대부분인 80%를 말레이시아를 통해 식수를 공급받는 싱가포르가 식수 확보를 위한 물 수입률을 줄이기 위해 비가 올때 수위가 높아져 바다로 소실되는 빗물의 양을 줄이고 그 빗물을 댐에 저장해 정수 처리하여 식수나,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보급하기 위해 발전되어진 식수보급 기술을 알아보기 쉽게 박물관의 형태로 만들어놓은 곳이기도 하고, 해수 담수화플랜트가 있는 싱가포르 상수도시설이기도 합니다

즉, 이 곳에서는 저수지에 있는 물을 정수시켜서 사용하며, 해수를 가지고는 담수화플랜트로 처리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마리나 버라지 내부에는 환경 관람관과 1층 내부에는 멤브레인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려한 경관으로 녹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선사하며 마리나버라지의 옥상에는 조경 및 이산화탄소 저감, 옥상 온도상승 및 내부 방열효과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4. 기대 효과

- 가. 선진국의 도시계획 및 문화관광 시설 현장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지역과 비교하여 군정 실정에 따른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 도모
- 다. 비교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우수사례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연구 및 개발
- 나. 선진지 우수 행정 현장 방문을 통해 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을 함양시켜 의정활동 지원 능력 향상